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손 태 우*

目 次

I. 서론	IV.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주요 내용
II.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론	V. 결론
III. 이슬람 기업의 일반론	

I. 서 론

IMF 이후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역시 개도국에 많은 자회사를 진출시키고 있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본국의 인권, 환경권 혹은 노동권 등과 관련된 법률규정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투자유치국에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법률적·윤리적 장애 혹은 부담없이 사업경쟁력을 높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금세기는 기업윤리의 시대라 칭할 만큼 국제사회와 기업경영에

■ 투고일자 : 2017년 11월 15일, 심사일자 : 2017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12월 26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론(Enron) 사태 이후 기업에 대한 윤리성 요구는 여론을 넘어 사회적 제재 및 법적 규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제 다국적 기업은 환경 중심의 그린 라운드(Green Round)에서 윤리 중심의 윤리 라운드(Ethic Round)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이러한 논의는 비이슬람국가에 기반을 둔 서구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일국의 국내기업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적 공적 문서로는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으로 약칭함)²⁾,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이하에서는 '글로벌 콤팩트'로 약칭함)³⁾, ILO의 1998년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에서는 'ILO 노동기본권선언'으로 약칭함)⁴⁾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의 2010년 11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인 'ISO 26000'⁵⁾ 등이 이미 국제사회에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 공적 문서는 회원국 혹은 회원기업에게 권고적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이슬람 기업은 태생적으로 이슬람법(샤리아)에 적합한 기업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샤리아의 법적 강제성과 통제를 받고 있다. 샤리아는 1400년 이상 변함없이 이어온 꾸란을 규범의 근간으로 무슬림이 준수해야 하는 종교규범이자 일상 행위규범이다. 이에 이슬람 기업은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공적 문서에 나타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회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현재 많은 기업과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적 공적 문서에 나타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정치한 국제규범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기업경영에 체화시킨 이

1) 이종영, 기업윤리·윤리경영의 이론과 실제, 삼영사, 2007, 26면.

2) Infra note 18.

3) Infra note 19.

4) Infra note 20.

5) ISO 26000은 가이드라인 명칭에서 CSR 중 C(Corporate)를 삭제하여 기업, 정부, 시민사회 전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 등에게 사회적 책임의 기본원칙 및 사회적 책임 관련 핵심주제와 쟁점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의 조직전략, 체계, 실행 및 절차에서 사회적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출처: <<https://www.iso.org/iso-26000-social-responsibility.html>> (2017.9.20 접속),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슬람 기업의 경영형태와 활동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슬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간이 되는 샤리아에 대한 일반론과 서구식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반론을 먼저 살피고,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론

1. 서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아래에서는 'CSR'로 약칭함)은 19세기 말 카네기(Carnegie)의 '부의 복음'(The Gospel of Wealth)에서 사상적으로 출발하여 20세기 초 일부 산업계의 선각자와 학자들을 주축으로 정립되었고, 그 후 양적·질적 연구가 크게 진화되고 있다.⁶⁾ CSR의 일반적 개념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이윤추구는 물론 최소한 사회규범으로서 법령 및 윤리를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청 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책임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⁷⁾

많은 국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정책을 채택하고 투자관련의 지역적·다자간 통합체제를 구축하여 다국적 기업과 국제투자에 대한 새로운 규범 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관심을 두게 된 이유 중에는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이 국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국내법을 제·개정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일련의 기업부패를 조장하였기 때문이

6) 김성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이론적 변천사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1호, 2009.3, 2면.

7) 김성수, 앞의 논문, 4면; 정후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07-22, 2007.7, 3면. CSR은 기업이 해당 주주에게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미국법상 '이해관계인'(stakeholders)에 해당된다. 즉 기업 경영의 초점이 종래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인 중심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Archie B. Carroll & Ann K. Buchholtz, Business and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Thomson/South-Western, 1996, p.74.

다. 문제는 이들 개도국이 투자유치, 정경유착 등 여러 요인으로 설령 다국적 기업이 소재국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거나 권리남용을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다국적 기업의 본국이 소재국의 종속회사가 행하는 권리남용적 혹은 위법적 경영활동에 일정한 제재와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법인이론에 기초한 현재 서구 법 체계에서 외국자회사는 그 주주인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모기업의 국적국이 자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자회사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이나 국가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재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한다.⁸⁾ 더구나 이들 국가는 다국적 기업을 국제협약 및 국제관습법상 인권, 노동, 및 환경의무의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⁹⁾

그러나 다국적 기업이 투자유치국에서 가지는 민·형사적 면책도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환경 및 인권에 대한 관련 이해집단의 증가, 본국에서의 소비자 인식전환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통용된다. 첫째, 쌍무투자협정과 같은 관련 국가간의 협정을 통한 방법이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시킬 수 있는 명확하고 간명한 방법이지만, 투자유치국인 개도국이 투자유인책으로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¹⁰⁾ 둘째, 다자간 인권 및 환경조약과 같은 다자간 체제를 통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회원국간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개별 회원국을 배제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이것 역시 회원국이 다자간 협약을 자국의 국내법으로 이행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도국은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이행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¹¹⁾ 셋째, 다국적 기업의 자율규제이다. 기업의 자율규제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및 여론 압박과 경영전략에 맞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주주 중심주의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채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서구식 기업

8) 참조 김민서,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95호, 2003, 43면.

9) 김분태·손태우,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 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부산대), 제51권 제1호, 2010.2, 650면.

10) Id., 651면.

11) Id.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외부의 법적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근거가 '연성법'(soft law)이므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한편 다국적 기업은 이해관계인에게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¹²⁾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보고 메카니즘(social reporting mechanism) 혹은 CSR에 대한 관리 및 기업의 경영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CSR이 관련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발적 의무일 수 있지만 정부와 사회는 다국적 기업을 타율적으로 규율하거나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시도를 행하고 있다. 예컨대 CSR에 대한 국내입법화, 다국적 기업의 역외행위에 대한 소송, 공적 국제차관 및 국제보증기관에 대한 청원 등이다.

2.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근거

(1) 다국적 기업의 국제법인격성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일반적 CSR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수반한 규범에 의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규제에 이행되고 있으며, 그 불이행은 단순히 윤리적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한 자율규제가 아닌 기업 외부로부터 자율규제를 감시·감독하는 외부규제 메카니즘을 가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규범 등에 복종하고 있을 때는 윤리적 문제로 취급할 수 없다. 이에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법인격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¹³⁾ 즉 다국적 기업이 국제규범 속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면 다국적 기업은 해당규범에 스스로 복종해야 하는 경제적 생활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CSR의 근거규범 대다수가 연성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12) 이를 소위 '공익연계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CRM)'이라 한다. 공익연계마케팅은 "사업과 자선 혹은 공익이 상호 파트십을 형성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이미지, 제품 혹은 서비스의 마케팅을 유발시키는 상업적 활동"을 말한다. 김주란·황장선,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전략 및 메시지 전략, 크리에이티브 전략 분석: 100대 기업 CSR 웹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3호, 2008.6, 77면.

13) See Ilias Banek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22 Boston U. Int'l L. J. 309 (2004).

14) 다국적 기업이 국제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관습법 혹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에서 발생한 명확한 법적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능력범위 내에서 직접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 또한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김분태·손태우, 앞의

기업이 연성법상 법인격을 취득한다면 해당 연성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쟁법에 관한 EU법상 예외적 경우¹⁵⁾를 제외하고 관련 연성법이 다국적 기업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체적 근거

CSR은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할 자율규제이지만 국제기구, 학자들 그리고 NGO의 노력으로 CSR에 대한 연성법이 나오게 되었다. 기업은 이러한 연성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관행의 일부분인 자선형태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다. 여기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체적 근거는 국제적 공적 문서, NGO 가이드라인,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국내 입법 및 기업의 행위규약 등을 들 수 있다.¹⁶⁾ 다만 이들 실체적 근거의 효력은 그 출처 소재지가 국제 공적기구이나 사적 기구이나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¹⁷⁾ 아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체적 근거를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체적 근거로 드는 국제적 공적 문서의 대표적인 예시로 2000년에 개정된 OECD 가이드라인¹⁸⁾, UN 글로벌 콤팩트¹⁹⁾ 및 1998년 ILO 노동기

논문, 655면.

15) 유럽공동체를 창설하는 조약의 통합본(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Nov. 10, 1997), art. 81, 2002 O.J.(C.325) 33, pp.64-65.

16) 김분태·손태우, 앞의 논문, 658면.

17) Id.

18) OECD는 1970년대부터 국제투자의 활성화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1976년 ‘국제투자자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선언(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제정하였는 바, 그 선언 중의 중요한 규범이 OECD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OECD 가이드라인은 2000년에 개정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8개 분야인 정보공개의무,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과의 전쟁,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및 조세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9, OECD Doc. OECD/GD(97)40 (2000),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56/36/1922428.pdf>> (2017.10.10. 접속).

19) UN 글로벌 콤팩트는 2000년 UN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세계 경제지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개별기업관행에 관한 당시 9개의 콤팩트원칙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글로벌 콤팩트는 아래와 같이 10개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본권선언²⁰⁾ 등을 들 수 있다. CSR에 관한 NGO 가이드라인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글로벌 설리반 원칙(Global Sullivan Principles)’²¹⁾, ‘코 원탁회의(Caux Round Table: CRT)’²²⁾, ‘글로벌기업의 책임원칙: 사업이행측정을 위한 벤치마크(Principles for Global Corporate Responsibility: Benchmarks for Measuring Business Performance)’²³⁾,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 ④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⑤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⑥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하여야 한다. ⑦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방식을 지지하여야 한다. ⑧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⑨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개발과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⑩ 기업은 부당가격의 청구 및 뇌물 등의 부패를 방지하여야 한다. 참조 UN 글로벌 콤팩트, ‘글로벌 콤팩트가이드: 비전과 9개원칙에 대한 해설서’(Guide to the Global Compact: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Vision and Nine Principles) 51, U.N. Global Compact (2002), 출처 <http://www.unglobalcompact.org/content/Public_Documents/gcguide.pdf>(2017.10.10. 접속).

- 20) 1998년 ILO 선언은 1977년 ‘다국적 기업 및 사회정책상의 제 원칙에 관한 삼자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의 후속 선언문이다. 비록 후자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양자는 고용, 훈련, 근무여건 및 산업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김분태·손태우, 앞의 논문, 662면.
- 21) 글로벌 설리반 원칙은 보고서 표준유형의 가장 오래된 가이드라인으로 1977년 Reverend Leon Sullivan에 의해 발의되어 당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가 시행중인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이후 1999년 일부 다국적 기업이 설리반 원칙을 채택하여 그 내용을 재구성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건강과 환경기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광범위한 CSR 문제를 담고 있다. Leon H. Sullivan,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출처 <<http://globalsullivanprinciples.org>>(2017.10.24. 접속).
- 22) 코 원탁회의는 1986년 무역마찰의 완화, 미국·일본·유럽간 경제·사회관계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스위스 코(Caux)에서 창설되었다. 그 후 유럽, 일본 및 북미의 경제지도자이 모여 기업윤리와 CSR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듭하여 1994년 ‘사업을 위한 코 원칙’(Caux ‘Principles for Business’)이라는 기업행동지침을 정했다. 동 지침은 다른 이슈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업활동의 사회적 충격,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키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지지, 환경지지 및 불법 및 부패관행의 회피에 관심을 둔다. Caux Round Table, Principles for Business, 출처 <<http://www1.umn.edu/humanrts/instree/cauxrndtbl.htm>>(2017.10.24. 접속).
- 23) ‘글로벌기업의 책임원칙: 사업이행측정을 위한 벤치마크’는 1988년 범종파기업책임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가 개정한 것으로 책임있는 기업행위에 기초가 된다고 간주될 수 있는 60여개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이것은 관련 NGO, 노동단체, 종교단체 및 기업 등 외부당사자가 사회책임투자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위한 기업이행평가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벤치마크를 포함한다. The Ecumenical Council on Corporate Responsibility et al., Principles for Global Corporate Responsibility: Bench Marks for Measuring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orporate Examiner, Vol. 26, Nos. 6-8 (May 29, 1998).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출처 <<http://www.globalreporting.org>>(2017.10.24. 접속).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²⁴⁾ 등이 있다. CSR이 비록 자발적 규제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CSR의 국내입법화는 기업이 광의의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CSR의 이념에 부합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샤베인-옥슬리법(2002 Sarbanes-Oxley Act)²⁵⁾과 영국의 기업책임법(2003 Corporate Responsibility Bill)²⁶⁾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행위규약은 기업이 준수하는 행위의 윤리적 표준을 요약한 정책적 진술로 OECD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제, 사회 및 환경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이상도 언급하고 있다.²⁷⁾

그러나 국제적 공적 문서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체적 근거는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OECD 가이드라인에서 OECD가 UN만큼 보편적 국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동 가이드라인이 모든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가이드라인 가입국에 등록한 다국적 기업만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해당 국제적 공적 문서를 만든 기구 혹은 단체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된다.²⁸⁾ 여러 한계 중 결정적인 것은 위 국제적 공적 문서의 법적 성질이 연성법이라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어느 국제적 공적 문서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공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부분 국제적 공적 문서는 OECD 가이드

24) 1999년 처음 나온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가입한 기업이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정 다국적 기업이 UN 글로벌 콤팩트를 수용하는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먼저 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였다면 관련된 콤팩트 보고서 절차에서 동 기업의 기탁이 승인될 것이기 때문에 중시되고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출처 <<http://www.globalreporting.org>> (2017.10.24. 접속).

25) 샤베인-옥슬리법은 원 법령이름은 ‘공기업의 회계개혁 및 투자보호법’(Public Company Accounting Reform and Investor Protection Act of 2002, Pub. L. No. 107-204, 116 Stat. 745)으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회계개혁과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엄격책임제도를 도입한 법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윤리규범을 공개·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Sarbanes-Oxley Act §§ 7241-7266.

26) 기업책임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투명성 규범을 구체화하거나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동 법으로 잠재적으로 많은 제소권자로 하여금 외국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소송을 가능케 하는 보다 진보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Corporate Responsibility Bill, 출처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203/cmbills/129/2003129.pdf>> (2017.10.24. 접속).

27) Codes of Corporate Conduct: Expanded Review of their Contents, in Corporate Responsibility: Private Initiatives and Public Goals (OECD, Working Paper No. 2001/06, 2001), 출처 <<http://www.oecd.org/dataoecd/57/24/192265.pdf>>.

28) 김성룡·철호, FTA 시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2014, 319면.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라인처럼 스스로를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각국의 정부는 국제적 공적 문서를 다국적 기업의 자율에 맡겨 버리고 다국적 기업이 동 문서의 준수에 소홀히 하게 되어 그 본래의 목적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 나아가 OECD 가이드 라인처럼 국제적인 법정이나 기구가 아닌 관련 회원국에 설치된 특정 기구나 조직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처럼 소위 실체적 근거라고 주장되는 관련 국제적 공적 문서는 해당 문서와 관련된 기구나 조직을 통해서만 적용되거나 효력이 발생됨으로써 통일적인 적용 혹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²⁹⁾

Ⅲ. 이슬람 기업의 일반론

1. 근대화와 서구법 계수

이슬람 세계가 서구법을 계수하는 과정은 대단히 더디고 복잡한 관계로 이 논문에서는 중동 아랍국가만 한정해서 논하고자 한다.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식민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구의 우수한 기술과 통상력으로 당시 중동의 경제를 상당히 변화하게끔 하였다.³⁰⁾ 유럽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아랍지역 정권으로 하여금 법제도를 위시한 개혁정치를 부추였고, 중동의 엘리트 역시 유럽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자신의 체제를 유럽화하려고 하였다. 1839년에서 1876년까지의 탄지마트(Tanzimat: 상서로운 재정립)의 일환으로 진행된 오스만제국의 서구법 계수와 프랑스법을 모델로 한 1948년 이집트 민법(Egyptian Civil Code 1948) 제정 등이 그 예시이다.³¹⁾ 이러한 변화에 따라 종래 샤리아에서 유래된 법교육, 연구 및 분쟁해결제도와 일상생활 규범으로써의 샤리아 지위는 추락되었으며, 서구식 실체법이 그 자리를 메웠다. 샤리아

29) Id., 323면.

30) See W. B. Hallaq, *Sharia: Theory, Practice, Transform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art III. 물론 18세기 오스만제국 시절에도 유럽국가와 무슬림국가 사이에 체결된 무역협정인 '치외법원설정각서(Capitulations)'에 따라 특정 지역내에서 서양 상인이 자국의 법을 이슬람 국가내에 시행할 수도 있었다. Nicholas H.D. Foster, *Islamic perspectiv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sations: Part 2: the Sharia and Western-style business organizations*, 11(2)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273, 276 (2010).

31) Nicholas H.D. Foster, *supra* note 30, p.276.

는 사인의 지위, 가족법 및 상속법과 같은 일부 핵심분야에만 영향력을 미칠 뿐이었다.³²⁾ 아랍 이슬람국가의 서구법 계수에서 가장 빨리 진행된 것 중의 하나가 기업법(law of business associations)이었는데, 이는 종래 샤리아로 신흥은행, 대규모 물류 및 제조업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초 서구식 기업법은 1850년 오트만 상법(Ottoman Commercial Code 1850)으로 1807년 프랑스 상법전에서 대거 계수한 것이었다.³³⁾ 일련의 서구법 계수중에서 유럽인들 그 중에서도 프랑스인에게 위에서 본 계수된 기업법이 아랍 지역의 기업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여전히 샤리아가 민법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법에도 그대로 샤리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샤리아상 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법적이어야 하므로 아랍 에미레이트(UAE) 민법 제200조 제1항에 계약은 샤리아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샤리아 원칙은 UAE 회사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박, 돼지고기 또는 술 등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설립이 무효로 본다.³⁴⁾ 이것은 이슬람 국가가 프랑스 상법과 같이 서구법 그 자체만을 계수하고 민법과 같은 기초법을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법개념 및 정의의 흠결이 생겨 샤리아와 계수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³⁵⁾ 물론 이러한 법적 흠결은 이후에 시정되어가고 있다.

한편 기업 그 자체 의미가 서구 국가와 이슬람 국가에서 서로 다르다. 서구 국가에서 기업은 사적이며 상업적 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설립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기업은 애초에 정치적 조직체를 위한 도구 내지는 소규모 사회집단을 위해 소유되어 졌다.³⁶⁾ 물론 이것 역시 지역 금융시장의 발전과 자유화로 그 차이점이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요한 차이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서구법과 이슬람 국가내의 상관습 사이의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서구 기업법에서는 기업의 법인격이라는 추상적 법인격체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실체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지는

32) See N. J. Brown, Law and Imperialism: Egypt in Comparative Perspective, 29 Law and Society Review 109 (1995).

33) T. Kuran, The Absence of the Corporation in Islamic Law: Origins and Persistence, 53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785 (2005).

34) Nicholas H.D. Foster, supra note 30, p.277.

35) See C. Mallat, Commercial Law in the Middle East: Between Classical Transactions and Modern Business, 48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81 (2000).

36) Nicholas H.D. Foster, supra note 30, p.278.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개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이사의 유한책임을 부정하는 아랍지역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2. 서구식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샤리아적 관점

서구식 기업의 지배구조는 대표적으로 OECD 기업지배구조의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나타나 있는 ‘주주 우선주의(shareholder primacy)’이다.³⁷⁾ 주주 우선주의는 기본적으로 한 집단의 재정적 복지는 다른 복지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도덕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물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주주가 자신의 재원을 경영자에게 위임할 때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통제하고 감독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활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로 근본적인 차이점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이슬람 기업은 조직구조와 경영활동에서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서구식 기업처럼 주주 우선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간의 갈등을 고민할 필요가 원초적으로 없다. 이슬람 기업은 이슬람식 정의 관념에 따라 어느 집단의 이익이 다른 집단의 그것보다 우선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는 다른 주주를 대해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사해동포, 정의, 상호책임, 정직함과 투명성, 소수자의 보호 및 부의 적절한 공개와 공평한 분배 등을 바탕으로 한 전체 공동체의 경제적 복지를 위함이다.³⁸⁾

IV.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주요 내용

1. 개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체적 근거는 국제적 공적 문서, NGO 가이드라

3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ECD (2004), p.11.

38) M.U. Chapra, The Future of Economics: An Islamic Perspective, The Islamic Foundation, 2000, p.33.

인, 국내입법 및 관련 기업의 내부행위규약 등이 있고, 책임 범주별로는 인권보호, 노동관련 권리 보호,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독점 및 탈세 방지, 반부패 그리고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장려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주요 책임 범주별로 나누어 서구 기업과 이슬람 기업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를 논함으로써 이슬람 기업의 윤리경영이 현재 진행 중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병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권

다국적 기업이 특히 개도국에 투자할 때 일련의 인권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영업활동권 내외에 있는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혹은 종속 기업이 채택하려는 근로표준에 인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 적절한 근로표준에 관해서 글로벌 콤팩트와 OECD 가이드라인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가장 적절한 표준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이 세계인권선언을 기업의 행위규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³⁹⁾ 물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권단체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사회적·법적 시스템이 덜 발달된 개도국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종속기업의 규범으로 채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국적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투자소재국의 인권침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⁴⁰⁾

한편 CSR과 관련된 인권은 전통적 인권법과는 달리 환경 및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투자프로젝트의 활동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투자프로젝트 지역 내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지역공동체의 집단권리를 인정하고 있다.⁴¹⁾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은 개인소유지 박탈 및 재이주에 따른 특별보상과 같은 개인 권리적 요소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와 같은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처럼 사업시행에 따른 인접공동체의 환경이나 사회생활에

39) British Petroleum, Inc., Policy Overview: Ethical Considerations, 출처 <<http://www.bp.com/genericarticle.do?categoryId=27&contentId>>(접속 2017.11.10.), p.139.

40) 글로벌 콤팩트는 소재국내 인권위반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직접공모(direct complicity), 우호적 공모(beneficial complicity) 및 묵시적 공모(silent complicity)로 구별하고 있다. 직접공모는 다국적 기업이 인권위반에 참여한 경우이고, 우호적 공모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자행되는 인권침해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이며, 묵시적 공모는 적절한 관계기관과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인권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이다. Guide to the Global Compact, supra note 19, p.24.

41) 예컨대 OECD Guidelines, supra note 18, p.19, 23; Guide to the Global Compact, supra note 19, p.20.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은 소재국에서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및 병원을 설립하거나 관개시설 혹은 수자원 개발 등 유익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 자선활동은 진정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에 의해 승인된 대부조건으로 수행하는 있다는 점이다.⁴²⁾

이에 비해 샤리아는 누구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⁴³⁾ 이슬람 기업도 당연히 영업활동을 수행할 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슬람 기업이 자사의 영업활동을 샤리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내부 혹은 외부에 샤리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두어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꾸란은 언어, 피부색, 인종 등은 신이 인간을 식별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차별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인종차별과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⁴⁴⁾

3. 노동권

다국적 기업이 국제적 공적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노동원칙⁴⁵⁾은 다음과 같다: ①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율적인 인정 ② 모든 형태의 강요 혹은 강제된 노동의 일소 ③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일소 ④ 고용의 차별금지 ⑤ 인적자본 형성의 장려 ⑥ 효과적인 건강 및 안전규칙의 준수 등이다. 그러나 위 노동원칙이 다국적 기업의 소재국, 특히 개도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은 권위적 소재국 정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 및 안전규칙 역시 본국의 규칙과 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소재국의 최소임금은 사실상 노예임금이거나 근로자 연령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이 둔감한 다국적 기

42) 김분태·손태우, 앞의 논문, 671면.

43) 샤리아는 사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엿탐하거나 어디든지 점유자의 동의없이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꾸란 제49절 제12절, “아, 믿는 자들이여, 되도록 억측을 피하여라. 어떤 종류의 억측은 죄이다. 서로가 살피고 혐구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 누가 죽은 형제의 살을 먹는 무리를 좋아할 자가 있겠는가.” 꾸란 제24장 제27절, “믿는 사람들아,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가를 얻고 그 가족에게 인사를 한 후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그 편이 몸에 이롭다. 너희들은 아마 깨달을 것이다.”

44) 꾸란 제49장 제13절, “아, 믿는 자들아, 우리는 너희를 남녀로 나누어 창조하였다. 너희들을 부족과 종족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너희들 서로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중의 가장 존귀한 자는 보다 알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꾸란 제30장 제22절, “천지와 갖가지 언어와 피부의 빛깔을 창조한 것도 알라의 징표다. 진실로 그 가운데는 지식 있는 자에의 징표가 있다.”

45) Global Compact, supra note, Principles 3-6; OECD Guidelines, supra note, pp.19, 21.

업은 단순히 소재국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위의 국제적 공적 문서의 취지는 다국적 기업이 소재국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슬림에게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이 아니고 알라에 대한 숭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시 되고 있다. 예언자 모하메드는 “근로자의 땀이 마르기 전까지 그의 임금을 지불하라”, “나는 심판의 날에 세 명의 사람을 적으로 볼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마치게 한 후, 그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자이다” 혹은 “너의 근로자(종)은 너의 형제이니라. 그들에게 너가 먹은 것을 먹이고, 너가 입는 것을 입히며, 그들이 부담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하지말 것이며, 그들을 돕도록 하라” 등 근로에 대해 언급하였다.⁴⁶⁾ 또한 근로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넘어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고용 및 대우에 있어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⁴⁷⁾ 다음으로 역사적인 많은 사례를 감안하고, 집회의 자유와 협력에 대하여 꾸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최근 이슬람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노조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⁴⁸⁾

4. 환경권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 및 관련 국내 이행법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해 자국내 기업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 공적 문서인 OECD 가이드라인은 제6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환경권 존중 의무를 다루고 있으며, 글로벌 콤팩트도 제7원칙, 제8원칙 및 제9원칙에서 기업 역시 환경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천연자원의 가치와 자원 상호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은 종래의 순응적·한정적 위험평가에서 벗어나 환경적 문제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기후, 물 및 식량 분야에서 경영의 보호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⁴⁹⁾

46) 참조 출처: <<http://www.fmreview.org/sites/fmr/files/FMRdownloads/en/FMRpdfs/Human-Rights/cairo.pdf>> (2017.11.7 접속).

47) Anowar Zahid, et 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cial responsibilit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onsumers and society: OECD Guidelines and Islamic principles, Int'l J. Viv. Soc'y 11, 57 (2013).

48) Radwa S. Elsa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slamic law: labor and employment, 18 New Eng. J. Int'l & Comp. L. 97, 116 (2012).

49) 출처: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our-work/environment>> (2017.12.2 접속).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샤리아에서도 환경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신으로부터의 은혜로 여기며, 인간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자원을 사용할 자유로운 수단과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격려하고 촉진하면서도 무제한적 자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간을 우주질서 체계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과 인간의 삶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이 환경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우주의 질서의 일부를 이루어 공생해야 할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⁵⁰⁾

5. 반부패

OECD 가이드라인은 제7장에서 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에 저항할 것을 규정⁵¹⁾하고 있으며, 글로벌 콤팩트의 제10원칙에서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뇌물공여와 부패는 민주제도와 기업지배구조에 손상을 입히고 투자를 저해하며 국제경쟁의 조건을 왜곡시킴으로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관행의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무슬림은 주된 신념 중의 하나인 정의의 추구만이 영원한 평화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⁵²⁾ 따라서 무슬림은 계약에서 정직성과 상호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계약이 성립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경쟁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다. 꾸란은 부패의 주된 원인인 연고주의(nepotism)를 배척하고 있다.⁵³⁾ 자카트(Zakat: 회사)는 개인 뿐만 아니라 이슬람 기업도 당연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므로, 기

50) Anowar Zahid, supra note 47, p.58.

51) OECD,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연락사무소, 앞의 자료, 43면.

52) 꾸란 제5장 제8절, “믿는 사람들이여, 알라의 앞에서 증언자로서 공정함을 지켜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에 복받쳐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항상 공정하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경건함에 가깝다. 알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알라는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다.”; 꾸란 제4장 제58절, “말은 물건을 팔기 주인에게 돌려 주도록 알라께서는 명령하신다. 또 타인들 간의 일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53) 꾸란 제4장 제135절, “믿는 자들이여, 가령 너희를 자신에게 있어서나 또는 양친이나 근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알라 앞에 증언자로서 공정을 지켜라. 비록 상대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왜 그런가 하면 알라 편이 어떤 자에게도 한층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에 따라 길을 잘못 밟아서 안된다.”

업이 이윤을 사회로 환원시키지 않고 부당취득하거나 다른 이에게 뇌물을 주어 정의롭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⁵⁴⁾

V. 결 론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은 일국의 경제력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더 이상을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실체가 아닌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국제적 공적 문서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UN를 비롯한 많은 국제조직 및 단체에서 기업과 단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공적 문서를 만들었지만, 비강제적·자발적·포괄적 규범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국제 기준의 자발적 규제에 대해 국제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부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강제적·규범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발적·권고적인 접근방법으로 국제적 공적 문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결국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전략기획을 넘어 기업의 일상업무수행에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슬람 기업은 이미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핵심목표이자 일상업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 및 UN 글로벌 콤팩트에 나타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율규제가 아닌 실질적 규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기업이 그랬듯이 경영관리적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상시적 인식 혹은 훈련과 경영전략평가를 통해서 전체 업무속에서 체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본국과 소재국은 종래 역외 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권, 노동권 및 환경권 등을 포함하는 CSR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국제 공적문서인 OECD 가이드라인, 글로벌 콤팩트 그리고 각종 NGO기반의 가이드라인과 보고 표준 등에 관한 내용들

54) Samiul Hasan, Business sustainability and the UN Global Compact: A "public interest" analysis for Muslim majority countries, 23:1 Intellectual Discourse 7, 23 (2015).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이 국제관습법 등으로 진화되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세계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주주중심의 회사법 사고가 수정되어 이해관계자중심의 기업틀로 변화되기 시작함으로써 CSR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민서,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95호, 2003
- 김성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이론적 변천사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1호, 2009.3
- 김성룡·정철호, FTA 시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5호, 한국무역연구원, 2014
- 김분태·손태우,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 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부산대), 제51권 제1호, 2010.2
- 김주란·황장선,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전략 및 메시지 전략, 크리에이티브 전략 분석: 100대 기업 CSR 웹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3호, 2008.6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9, OECD Doc. OECD/GD(97)40 (2000)
- UN 글로벌 콤팩트, '글로벌 콤팩트가이드: 비전과 9개원칙에 대한 해설서'(Guide to the Global Compact: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Vision and Nine Principles) 51, U.N. Global Compact (2002)
- 이종영, 기업윤리·윤리경영의 이론과 실제, 삼영사, 2007
- 정후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주요국 사례와 시사점, 한은조사연구, 2007-22, 2007.7

<외국 문헌>

- Anowar Zahid, et al,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cial responsibility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onsumers and society: OECD Guidelines and Islamic principles, Int'l J. Viv. Soc'y 11 (2013)
- Archie B. Carroll & Ann K. Buchholtz, Business and Society: Ethics and Stakeholder Management, Thomson/South-Western, 1996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 C. Mallat, Commercial Law in the Middle East: Between Classical Transactions and Modern Business, 48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81 (2000)
- Caux Round Table, Principles for Business, 출처 <<http://www1.umn.edu/humanrts/institute/cauxrndtbl.htm>>
- Codes of Corporate Conduct: Expanded Review of their Contents, in Corporate Responsibility: Private Initiatives and Public Goals (OECD, Working Paper No. 2001/06, 2001)
- Ilias Banek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Law, 22 Boston U. Int'l L. J. 309 (2004)
- Leon H. Sullivan, Global Sullivan Principles of Social Responsibility, 출처 <<http://globalsullivanprinciples.org>>.
- M.U. Chapra, The Future of Economics: An Islamic Perspective, The Islamic Foundation, 2000, p.33
- N. J. Brown, Law and Imperialism: Egypt in Comparative Perspective, 29 Law and Society Review 109 (1995)
- Nicholas H.D. Foster, Islamic perspectiv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sations: Part 2: the Sharia and Western-style business organizations, 11(2)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273 (2010)
- Radwa S. Elsam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Islamic law: labor and employment, 18 New Eng. J. Int'l & Comp. L. 97 (2012)
- Samiul Hasan, Business sustainability and the UN Global Compact: A “public interest” analysis for Muslim majority countries, 23:1 Intellectual Discourse 7 (2015)
- T. Kuran, The Absence of the Corporation in Islamic Law: Origins and Persistence, 53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785 (2005)
- The Ecumenical Council on Corporate Responsibility et al., Principles for Global Corporate Responsibility: Bench Marks for Measuring Business Performance, in The Corporate Examiner, Vol. 26, Nos. 6-8 (May 29, 1998).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W. B. Hallaq, Sharia: Theory, Practice, Transform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art III.

<국문초록>

금세기는 기업윤리의 시대라 칭할 만큼 국제사회와 기업경영에 윤리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엔론 사태 이후 기업에 대한 윤리성 요구는 여론을 넘어 사회적 제재 및 법적 규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제 다국적 기업은 환경 중심의 그린 라운드(Green Round)에서 윤리 중심의 윤리 라운드(Ethic Round)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국적 기업은 더 이상을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실체가 아닌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국제적 공적 문서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UN를 비롯한 많은 국제조직 및 단체에서 기업과 단체들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공적 문서를 만들었지만, 비강제적·자발적·포괄적 규범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국제 기준의 자발적 규제에 대해 국제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 부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여전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강제적·규범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발적·권고적인 접근방법으로 국제적 공적 문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결국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기업전략기획을 넘어 기업의 일상업무수행에 본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슬람 기업은 이미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핵심목표이자 일상업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 및 UN 글로벌 콤팩트에 나타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율규제가 아닌 실질적 규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기업이 그랬듯이 경영관리적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상시적 인식 혹은 훈련과 경영전략평가를 통해서 전체 업무속에서 체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본국과 소재국은 종래 역외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권, 노동권 및 환경권 등을 포함하는 CSR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국제 공적문서인 OECD 가이드라인, 글로벌 콤팩트 그리고 각종 NGO기반의 가이드라인과 보고 표준 등에 관한 내용들이 국제관습법 등으로 진화되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세계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주주중심의 회사법 사고가 수정되어 이해관계자중심의 기업틀로 변화되기 시작함으로써 CSR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주제어 : 다국적 기업, 사회적 책임, 이슬람 기업,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콤팩트, 이슬람법, 샤리아, 꾸란, 순나, 기업지배구조

서구식 기업과 이슬람 기업의 시각에서 본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별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Study on the perception by category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point of view of Western
corporation and Islamic corporation

*Sohn, Tae-Woo**

As the rising influe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widely accepted to current international law and public society, it is a natural recognition that businesses need to accept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because their profit making actions may infringe on others' rights and may b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irresponsible.

Recently,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adopted the international public documents, for examples OECD guidelines and Global Compact, as an essential guide for undertaking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usiness. However, the documents operate on a purely voluntary basis, that are soft law mechanism having voluntary standards and framework agreements.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the vagueness and subjectivity of the commitments they elicit from their participants.

Although the ter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generally assumed to have been born in West, CSR is not an exclusively Western notion. Although not mentioned in the Quran or Sunnah, the substance of CSR is really the essence of the Islamic faith and law. Islam to Muslim is not just a faith; it is also the law that governs their lives and the way they choose to live their lives. Thus, the teachings of Sharia not only appear to be the similarity of the documents, but in respects go further than the minimum standards adopted by its framework.

CSR and Sharia also agree that while a corporation has the freedom to pursue profits, such freedom ends at the point where the freedom of others and the well-being of the environment

* Professor,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해운통상법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conflict with this pursuit. If the commercial rules in Sharia were more regarded in the West, some of the complications of the current CSR problems would not have taken place.

Keywords : Multinational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 Islamic company, OECD guideline, UN Global Compact, Islamic law, Sharia, Quran, Sunnah, Corporate Governance